

# 국장 신청 26일까지

<국가장학금>

# 소득 9구간까지 확대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기존보다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기존까지의 국가장학금은 I 유형과 II유형 모두 한국장학재단이 추산하는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에서 1~8구간, 그리고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원됐다. 국가장학금은 I 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II유형은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에 대해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I 유형과 II유형 모두 소득구간 9구간의 학생들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은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100만원, 다자녀로 첫째·둘째는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II유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과 필수 경비 내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이에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수는 50%가량 증가한다. 그간 소득분위 8분위에 속하지 못해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생들은 이 같은 소식을 반기고 있다. 소득분위 9분위에 속하는 음악

대학 소속 재학생 최 씨는 “친구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나는 받지 못했다”며 “지원대상이 확대돼 나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했다.

다만 수혜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학생까지 확대되는 점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9분위에 속하지 않는 경영대학 재학생 이 씨는 “소득구간 9구간의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간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 가구에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는 것이 예산을 잘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 생활고를 겪는 청년에게 지원을 늘리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하위 소득 구간에 대한 지원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년장학지원과는 “소득구간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학생들에 더해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확대가 시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변동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년장학지원과는 “예산이 마감되는 12월 말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장학금 액수, 지급 시기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작년 예산안 심의 때는 작년 12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예산이 확정됐다.



디 엘더스가 미원평화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9일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왼쪽부터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 이리나 보코바 위원장, 디 엘더스 반기문 공동 부의장. (사진=권도연 기자)

## 미원평화상 시상식, 디엘더스 반기문 부의장 “세계평화를 위해 다자주의 필요”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독립 비영리 단체 The Elders (디 엘더스)가 초대 수상자로 선정된 제1회 미원평화상 시상식이 지난달 29일 평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선 디 엘더스 반기문 공동 부의장이 대표로 참석해 상을 받았다.

디 엘더스는 2007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세운 독립 비영리 단체다. 분쟁·전쟁지역 등 위험지역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알리고 직언하는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 부의장은 “평화를 위해서는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세계 시민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현재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가 국가의 이익, 당의 이익과 같은 좁은 시각에서만 정치를 하니 서로 간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 이리나 보코바 위원장은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우리 사회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화에 대해 조영식 박사의 비전을 가진 단체를 찾아 계속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미원평화상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는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반 부의장의 수락사가 이어졌다.

조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디 엘더스의 행보는 경희학원의 슬로건인 ‘인간에겐 사랑, 인류에겐 평화’에 걸맞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락사에서 반 부의장은 “다자주의는 재앙을 막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대 수상자로 선정된 디 엘더스는 세계적 조각가 박은선(미술교육 1983) 동문이 제작한 트로피와 미화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700만 원)를 받았다.

## 2025-1학기 교내장학(우정장학 포함) 신청

- 가. 신청기간: 2024. 12. 02(월) ~ 2025.01.10.(금) (기간 연장 불가)
  - 나.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다.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0 이상 (직전학기 교환학기, 장기실습학기의 경우 9학점 이상 이수 및 Pass)
  - 라. 신청방법: info21 로그인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 마. 요청사항: 붙임 안내문을 단과대학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공지
  - 바. 기타사항
    - 1) 고시장학(신규)의 경우 단과대학으로 서류 취합 후 학기 개시일 이후 업무연락으로 제출
    - 2) 우정장학 수혜희망자는 2025-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 2025-1학기 국가장학금(1차) 신청기간: 2024. 11. 21(목) ~ 12. 26(목) 18시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임)